

코러스 데이

성가대원을 위한 핸드북

최병철 지음

CHORUS DEI

The Worship Choir Handbook



성가대의 본질과 영성, 음악적 원리,

공동체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다룬 전문 핸드북

예술

머리말

“찬양의 마음을 다시 배우며—”

모든 성가대의 바람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중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일 게다. 너무도 당연한 말 같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대원은 대원대로,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원인은 내면의 깊은 곳에 있다.

성가대 사역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갈등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자기의식’일 것이다. 음악이라는 예술의 속성에 이미 그런 요소가 스며 있다. 연주자는 본능적으로 청중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반응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연주(performance)’라는 예술 자체가 ‘보여지는 행위’인 까닭이다. 그래서 음악인들은 무의식중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음이 흔들린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잠시 우쭐해지기도, 한계에 부딪칠 때면 끝없는 열등감에 헤매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막상 연주가 끝나면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한다.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어느 새 내 것으로 취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

일인지를 매번 깨달으면서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마주하는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절규는 아마 오늘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교회음악인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 연주와 섬김의 자리에서 그 같은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음악인들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처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된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의 궁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느리지만 그래도 예배자의 성숙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세월은 흘러, 예전처럼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동안 나는 연주가로, 지휘자로, 음악치료사로, 그리고 교육자로 살아왔다. 이제는 현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 온 생각들을 정리하여, 성가대원을 위한 한 권의 교재를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은 “코러스 데이: 성가대원을 위한 핸드북”이다. 라틴어 CHORUS DEI는 ‘하나님의 성가대(Choir of God)’를 뜻한다. 나는 이 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소리공동체로서의 성가대에 대한 열망을 담았다.

이 책을 쓰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주일 예배 찬양에서 느끼는 아쉬움 때문이다. 요즘 예배의 소리가 너무 크다. ‘시끄

럽게’ 느낄 정도다. 그래서인지 성가대마저 마이크 출력을 높여, 생음이 아닌 증폭된 기계음을 들려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배당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풍성한 울림을 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큰 소리들을 좋아하는지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가대원들도 섬세하고 어울림이 있는 ‘합창’을 하기보다, 크게 부르는 데 익숙해진 것만 같다.

게다가 예배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 곡들이 분별없이 불리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가사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노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때로는 회중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단조풍의 멜로디와 자극적인 리듬의 곡을 사용한다, 이런 현실이 마음 아프다.

교회마다 ‘성가대’ 혹은 ‘찬양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 모두 “예배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적 사역”을 뜻한다. 나 역시 한때는 ‘찬양대’라는 이름이 더 직접적인 듯하여 좋아했지만, 이제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방향인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우리의 노래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가대’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성가대의 찬양은 어디까지나 예술 이전에 예배 행위이며, 음악적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신앙 고백과 신학적 중심이다. 사람의 감동보다 앞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가대 찬양의 참된 목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발성 교재나 합창 기술서가 아니다. 성가대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첫 번째는 성악적

기술과 음악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가대의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이다. 이를 Part I과 Part II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물론 글로써 합창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이 내용이 성가대원의 자기 성장과 지휘자의 훈련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글을 맷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나니”(히 11:6)라 한다. 이 책은 찬양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예배 속에서 그 사역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작은 시도다. 지휘자에게는 예배의 방향을 비추는 나침반이, 성가대원에게는 찬양의 마음을 일깨우는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찬양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깊고 순결해지고, 그 노래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글을 쓴 이유는 충분하다.

주 안에서,
저자 최병철
bchoi@sm.ac.kr

차례

머리말 4

PART I 발성과 음악

1장 합창 입문 • 12

1. 소리	15
1) 네 가지 형태의 음악적 목소리 2) ‘의도’는 소리의 방향성을 결정	
2. 발성	21
1) 주요 발성 메커니즘 4가지 2) 성악의 기본 원칙 5가지	
3. 합창 양상들의 성악적 평가 기준	44
1) 음정 2) 어택과 릴리스 3) 섞임 4) 균형 5) 음질 6) 딕션 7) 표현	
4. 지휘자와 성가대원의 음악적 소통	48
1) 지휘자는 ‘보이는 소리’다 2) 성가대원은 ‘듣는 지휘자’다 3) 소통의 중심은 ‘호흡’이다 4) 손과 눈의 대화 5) 신뢰 6) 영적 지휘	
5. 파트의 이해	52
1) 소프라노 2) 알토 3) 테너 4) 베이스 5) 외성과 내성의 관계 6) 파트의 인원 구성	
6. 공간의 이해	60
1) 성가대의 위치 2) 예배당 음향과 회중성	
7. 성가대의 마이크 사용	64
1) 생음과 증폭음의 물리적 구조 2) 사람의 귀와 뇌가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 3)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 포인트	

2장 음악의 이해 • 72

1. 음악	72
1) 음악의 요소 2) 음악 장르	
2. 음악과 인간행동	83

3. 음악의 효과	87
1) 일시적 효과 2) 영속적 효과	
4. 음악과 감정	94
1) 기대의 법칙 2) 표현적 시간의 의미	

PART II 성가대의 역사와 역할

1장 성가대의 역사 • 100

1. 구약에서의 성가대	100
1) 성가대의 제도적 시작 2) 회당 예배의 성가대	
2. 신약 교회로 이어진 회당 전통	108
1) 부활 이후의 새로운 찬양 2)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3) 악기가 없는 예배 4) 공동체의 소리, ‘하나의 목소리’ 5) 가사의 중심성 – 찬양은 복음의 선포였다 6) 찬양과 윤리 7) 초대교회 찬양의 영적 정신	
3. 중세 교회의 성가대와 그레고리안 성가의 형성	114
1) 수도원 운동과 성가대의 제도화 2) 그레고리안 성가의 형성과 특징 3) ‘노래하는 말씀’에서 ‘듣는 음악’으로 4) 가사의 신학적 의미 5) 오늘날 교회 성가대를 위한 교훈	
4. 종교개혁과 회중 찬양의 회복	119
1) 루터 2) 회중 찬양의 혁명 3) 루터의 음악신학 4) 칼뱅 5) 루터와 칼뱅의 공통된 신학 6) 성가대의 역할 변화	
5. 근대와 현대 교회의 성가대	124
1) 바흐 2) 웨슬리 3) 대각성 운동과 복음성가 4) 20세기 5) 현대 성가대의 과제 6) 예배의 다양성, 그러나 중심은 하나 7) 성가대의 정체성 회복 8) 오늘날 교회 성가대를 위한 교훈	

2장 성가대의 사명과 예배에서의 역할 • 130

1. 예배의 구조 속에서 성가대의 위치	132
1) 예배의 흐름 속에서 성가대의 자리는 ‘응답의 자리’ 2) 부름과 응답의 신학적 의미 3) 설교 이전의 설교 4) 찬양은 예배의 중심선에 있다 5) 성가대의 찬양은 회중의 ‘대표 응답’이다 6) 부름과 응답 사이의 ‘소리의 다리’ 7) 회중과의 상호작용	

2. 음악과 말씀 사이의 균형	137
1) 감정은 선물, 그러나 중심은 아니다 2) 음악의 목적은 진리를 더 분명히 보이게 하는 것이다 3) 감정이 앞설 때 일어나는 위험 4) 말씀 중심의 음악 해석 5) 예술성과 경건성의 균형 6) 감정에서 진리로, 진리에서 감동으로	
3. 성가대의 찬양은 공동체의 고백	141
1) 교회는 ‘함께 부르는 공동체’이다 2) ‘하나의 소리’는 단조로움이 아니라 조화이다 3) 화음은 교회의 신학을 드러낸다 4) 공동체적 고백으로서의 찬양	
5) 성가대는 ‘공동체의 얼굴’이다 6) 소리의 일치 이상으로 마음을 일치시킴 7) 공동체의 화음이 주는 영적 메시지 8) 성가대의 영적 태도 9) 성가대의 예배 참여	
4. 성가대의 사역과 실제	156
1) 성가대의 준비와 연습 2)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대원의 관계 3) 성가대 연습의 실제적 원칙 4) 곡의 선택과 해석	
5. 성가대의 미래	168
1) 예배의 환경은 변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2) 성가대의 미래 사명 3) 변화하는 예배 환경과 성가대의 도전 4) 미래의 예배를 위한 제언	

부록

성가대 세미나 교재	178
〈왜 노래 부르기는 치유적일까?〉 세미나 교재	184
〈성경적 치유음악사역〉 세미나 교재	190
때를 따라 돋는 찬송 리스트	200
참고 문헌	203
색인	206

PART I

발성과 음악

1장

합창 입문

합창(合唱, Chorus)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동시에 노래한다’는 뜻을 넘어, 각기 다른 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소리를 조화시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공동의 예술이다.

보통은 두 개 이상의 성부로 나누어 부르며, 2성부에서 많게는 8성부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남성과 여성의 음역이 어우러진 혼성 4부 합창(Soprano, Alto, Tenor, Bass)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부분의 교회 성가대가 이 구조를 따른다.

합창의 본질은 ‘화음(和音)’에 있다. 화음이란 서로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릴 때 생기는 합성된 울림이다. 이 단순한 현상 안에 신비로움이 있다. 화음의 연결, 즉 코드의 진행 (Chord Progression)은 음악의 중심인 조성(Tonality)을 만든다. 조성은 곡 전체의 방향성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듣는 이는 그 속에서 긴장과 이완, 기대와 해소를 느낀다.

높고 낮은 음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 긴장과 해소의 감정은, 마치 인간의 삶과도 닮아있다. 음악은 시간 속에서 흐르며, 불협화음과 협화음이 교차하면서 갈등과 해결의 드라마

를 만들어 낸다. 완전한 해소에 이르기 전까지의 불안정한 화성,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다. 불협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해소될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악기는 음으로 말하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말로 노래한다. 이것 이 기악과 성악의 본질적인 차이다. 그래서 성악에는 가사가 있다. 따라서 합창은 단지 음의 조합이 아니라, 말씀을 품은 소리의 예술이다. 성가대에서 가사는 곧 신앙의 고백이다. 그 고백을 사람의 호흡, 표정, 감정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또한 합창은 개인이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취미이자 영적 활동이다. 노래를 통해 외로움을 덜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존재를 느낀다. 규칙적인 호흡과 올바른 자세는 신체 건강 을 돋고, 음을 따라 부르는 집중력은 정신을 맑게 한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경청과 배려를 배우는 훈련 이다. 또한 가사는 감성을 깊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음성은 작지만, 그 음이 모여 화음을 이루면 놀라운 울림을 만든다. 동시에 합창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기도 하다. 내 목소리를 자랑하기보다, 전체의 소리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다. 무대에서 느끼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 찾아오는 깊은 평화와 카타르시스는 건강함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한다.

성가대의 합창은 단지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의 예배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호흡과 박자를 공유하며, 한 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합창의 본질이다. 따라서 성가대의 합창은 단순한 취미나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예배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를 보완하여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합창은 그 창조의 원리를 눈앞에서, 귀로, 몸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그 울림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합창이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방식임을.

• **Self check!** •

성가대에서 나는 . . .

(1) 존중받고 있는가?

아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렇다

(2) 몰입하여 찬양하는가?

아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렇다

(3) 감정을 공감하며 찬양하는가?

아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렇다

(4) 즐거운가?

아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렇다

(5) 자발적인가?

아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렇다



[그림 1] 성가대원은 ‘소리로 섬기는 예배자’다

존중받는 성가대원은 행복하게 찬양에 몰입한다.

가사를 공감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며, 자발적이다.

1. 소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하다.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도시의 소음까지, 세상은 쉼 없이 울린다. 그러나 모든 소리가 다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다.

음향물리적으로 좋은 소리는 듣기 편한 음역의 부드러운 음향의 소리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나쁜 소리는 귀에 거슬리거나 시끄러운 소음들이다.

언어적으로 좋은 소리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인정의 뜻을 담은 말들이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또한 좋은 소리일 것이다. 반대로 나쁜 소리는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 즉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악한 말이다.

음악적으로 좋은 소리는 화음과 조화가 이루어진 소리이며,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다. 반면 음악적으로 나쁜 소리는 불쾌감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소리로, 대개 음악적·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심리적으로 좋은 소리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소리이고, 나쁜 소리는 불안과 초조, 불쾌감이나 섬뜩함을 불러온다. 영적으로 좋은 소리는 내면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소리이며, 그 반대의 소리는 내면의 불일치와 불안, 공포,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제 그 소리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려보자. 세상에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라, 내 몸이 내는 소리, 즉 몸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소리

이다. 한숨, 옹알이, 웃음, 울음, 비명, 신음소리 같은 소리들이다. 이런 소리들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우리의 몸과 감정이 어떤 상태 인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긴장이 쌓이면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평안하면 호흡이 깊어진다. 몸의 소리는 몸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몸소리는 유형적인 것과 비유형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유형적인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숨소리나 웃음, 신음 같은 소리들이며, 비유형적인 소리는 몸의 자세와 근육의 긴장, 혹은 호흡의 패턴처럼 소리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진동이나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소리이다. 실제로 우리 몸은 정교한 악기이며, 끊임없이 진동 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듯, 마음이 지치면 숨이 앓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내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목소리는 특별하다. 목소리는 인간 신체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기다. 혈액기나 관악기, 타악기는 외부의 도구가 필요하지만, 목소리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일은 곧 자신을 찾는 일이 된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목소리에는 저마다의 삶과 감정, 영혼의 결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돌보는 일은 단순히 음악적 기술의 문제이기 전에 자신을 찾고 돌보는 일이다.

1) 네 가지 형태의 음악적 목소리

첫째는 허밍(Humming)이다. 이가 서로 닿지 않게 입술을 불여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내는 소리를 말한다. 허밍은 노래나 토닝 발성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